

북한 장편소설의 한국전쟁 형상화 양상 연구

- 장편소설 『전선』과 『50년 여름』을 중심으로 -

권오현*

- I. 머리말
- II. 북한 소설의 창작 이념과 시대 변화
 -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문예론의 전개
 - 2. 총서 ‘불멸의 역사’와 『50년 여름』
 - 3. ‘숨은 영웅’의 형상화와 『전선』의 대중성
- III. 북한 소설의 한국전쟁 형상화 양상
 - 1. 대서사시의 전개와 전형적 인물의 창조
 - 2. 무갈등 이론의 미학과 전쟁 배경의 효과
 - 3. 한국전쟁에 대한 발발 원인과 과정에 대한 표현 방법
- IV. 한국전쟁의 소설적 형상화의 의의와 문제
 - 1. 작중 배경으로서의 전쟁과 품성의 문제
 - 2. 역사적 사건의 총체적 전망의 문제
- V. 맺음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북이 공유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며, 남북 갈등의 표면화와 분단의 고착화를 내포하는 사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설에서 형상화된 한국전쟁을

*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고찰한 결과가 가지는 가치는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의 소설을 대비하여 그 이질성과 동질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대표적인 소설을 각각 선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본 연구는 일단 북한의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북한에서 출간된 리장후의 『전선』 제1부(1987)와 제2부(1993), 그리고 안동춘의 『50년 여름』(1990)이다.

북한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체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을 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접근하면 국제 정세의 격동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소설 창작의 이론과 표현에서 세밀하나마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북한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중성 발현 및 1990년대 이후의 주체문예론의 강화와 연관되는 것이다.

북한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다루는 것은 결국 계몽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의 소설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현재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 상황의 정점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인민 대중에게 선전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방법론이 일환이었던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해방 이후 격화되면서 한국의 현대사는 분단의 역사와 중첩되었다. 그리고 그 대립의 정점에 한국전쟁이 있다. 한국전쟁은 남북 갈등의 표면화와 분단의 고착화를 내포하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은 남북이 공유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며, 가장 첨예하게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설에서 형상화된 한국전쟁을 고찰한 결과가 가지는 가치는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소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그 이질성과 동질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흔히들 분단 60년의 역사 속에서 남북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의는 그 이질화된 현상과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선입견에 의하여 진행된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 이질화가 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극단적인 이질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그 이질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도 잔존하는 동질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소설은 언어의 문제부터 이념의 문제까지 소상하게 대비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의 소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질성과 동질성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대표적 소설을 각각 선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본 연구는 일단 북한의 소설을 고찰하고자 한다.¹⁾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북한에서 발간된 리장후의 『전선』(제1부 1987. 11월, 제2부 1993. 3월)와 안동춘의 『50년 여름』(1990. 3월)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장편소설이다. 발간 연도를 살펴보면 『전선』 1부와 『50년 여름』이 3년 4개월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3년의 간격을 두고 『전선』 2부가 발간되고 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북한의 장편소설에서 발간 시기와 창작방법론

1) 한국전쟁을 다룬 남북한의 장편소설을 다룬 연구로서 서경석의 평론(『6·25 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비평』, 1990 가을. pp.400-410)과 논문(『6·25와 남북한 문학』,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 16,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p.249-269)을 꼽을 수 있다.

의 적용에 따른 변화를 미세하나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장편소설의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한국전쟁의 소설적 형상화가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면서 북한의 문예이론의 변화가 창작에 미친 결과를 검토하고 그 표현의 차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북한 소설의 창작 이념과 시대 변화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문예론의 전개

북한의 소설을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 사회에서 문학이 가지는 기능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소설은 당의 교시를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고 계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소설 이론으로 접근한다면 해석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의 문학은 그 시각이 정치영역에서의 시각과 그 이데올로기적 위상에 있어서 통일되어 있는 ‘당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은 이미 올바르다고 판단된 시각에 의하여 규정된 틀 안에서 영웅적 전형을 창조하여 실감 있게 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¹⁾ 즉 북한의 문학은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본성을 가지며 소설은 묘사문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비판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소설에서 얻어낼 수 없는 결과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한의 소설과 북한의 소설은 전혀 다른 장르라는 극단적인 진단이 나오기까지 한다.

1) 서경석, 「6·25 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비평』, 1990 가을. p.401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하여 당정책을 연구한다기보다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기 위하여 작품을 쓴다는 입장을 가지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창작가적자세이다.²⁾

북한의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방법론은 잘 알려진 대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다. 1951년부터 1957년에 걸쳐 진행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논쟁³⁾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당의 공식 창작방법론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북한의 모든 문예작품은 여기에 맞춰 창작되기에 이른 것이다.⁴⁾ 이는 고상한 인간형을 소설에서 구현하고자 하면서 그 고상한 인간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고상한 리얼리즘’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모색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⁵⁾

주체사상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적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주체사상에 의한 문예창작론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주체문예이론’이 그것이다.⁶⁾ 기실 주체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지만 ‘수령 형상’을

2) 장영, 『작품의 인간문제』, 주체적문예리론연구(1), 문예출판사, 1989. p.295

3) ※ 이 논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책들 참조하라.

북한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편),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발전 논쟁』, 사계절, 1989.

리동수,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살림터, 1992.

김성수(역음), 『우리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사계절, 1992.

4) 졸고, 「우리 문학의 분단 양상과 리얼리즘 이론의 대립」, 『문학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도서출판 사람, 2000. p.230

5) ‘고상한 리얼리즘’은 한효에 의해서 제창되었는데, 일찍이 해방직후의 정국에서 김남천이 제창한 ‘진보적 리얼리즘’을 토대로 월북 후에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수식어를 바꾼 것이다(졸고, 「해방직후 리얼리즘 연구」, 『문학에 대한 두 가지 단상』, 2000. pp.210-213 참조).

6) 주체문학론은 1967년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와 1970년의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전개되었다.

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을 비롯한
가계 인물의 형상화 작업의 경향은 유일사상 체계 확립 이전에는
거의 없던 현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수령의 형상화라는 차원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 작품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경향이
주도적인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⁷⁾ 이러한 주체문
예이론이 주도적인 문학이념 혹은 창작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시기
는 대략 1970년대이다.⁸⁾

주체 사실주의는 종자론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
다. ‘종자’란 “당 정책의 요구에 맞고, 형상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
는, 생활 속에서 탐구된 사상적 알맹이”⁹⁾로서, 그러한 종자를 올바
로 파악한 작가라면 그것에 열정적으로 매달려서 전형으로 창조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신 종자를 똑바로 쥐고 작품
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에 대한 연구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학예술작품이 종자를 기
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작품창작이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¹¹⁾

기본적으로 주체문예이론 혹은 주체사실주의라는 것이 김일성을
전형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주도자로서 김정일이 활
동하였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바이다. 이는 북한 정권
의 후계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1980년대

7)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p.257

8) 김윤식은 이에 관하여 “주체 문학론이란 김일성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김
정일이 총감독을 맡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치는 한 시기의 문학이념
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김윤식, 『북한의 문학사론』, 도서출판
새미, 1996. p.24).

9)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769

10)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p.50

11)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7

들어 북한의 소설은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한 형태로 창작되었다. 이를 두고 ‘이념과 예술 사이의 의미 있는 방향’¹²⁾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개성을 통하여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현실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중적 영웅으로서 인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러한 변화 역시 북한 문예운동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김정일이 ‘숨은 영웅’을 공산주의적 인간의 참된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촉발되었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숨은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문학예술의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 숨은 영웅들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는 과정에 노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 인민군병사, 당일군, 행정일군 등 각이한 부문에서 일하는 각이한 계층의 숨은 영웅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¹³⁾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주체문학론』(1992)의 출판을 기점으로 ‘주체 사실주의’가 자리잡으면서 다시 원론적인 주체문예이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967년 이후 주체문예이론을 집대성한 『주체문학론』은 1992년 이후 북한 문학의 창작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의 북한문학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이 내포하고 있는 북한의 폐쇄적 민족자주성 논리의 강화와 유연한 대외적 개방·개혁의 모색이라는 지배전략의 이중성에 상응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진단되고 있다.¹⁴⁾

12) 이재인·이경교, 『북한문학강의』, 효진문화사, 1996. p.155

13) 조유철, 「숨은 영웅들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미학실천적 문제」, 『문예론문집(4)』,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111

14) 오태호, 「내면의 결핍을 강제하는 주체의 논리 - 분단 이후 북한 문학의 형성 고찰」, 『내일을 여는 작가』, 작가회의 출판부, 2005 가을. p.275

1990년대 들어와서 국제 정세의 격변과 북한 내부의 진통을 겪으면서 주체사실주의를 다시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으로 김일성을 다시 강조하는 ‘주체의 인간학’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개정된 헌법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설정한 것도 특히 염두에 둘 만하다. 붉은기 정신,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건설 등등의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990년대는 북한 사회가 큰 혼란을 치렀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문예이론 및 창작에서 보이는 변화를 소설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총서 ‘불멸의 역사’와 『50년 여름』

인동춘의 장편소설 『50년 여름』은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이라는 부제를 달아놓았다. ‘불멸의 역사’ 총서는 수령의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인식하게 하고, 수령을 따라 배우도록 만드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된 창작 작업으로서 1967년에 설립된 4·15 창작단을 중심으로 창작된 여러 장편소설의 묶어서 이른다.¹⁵⁾

-
- 15) ‘불멸의 역사’ 총서에 해당하는 소설 작품들 및 그 시대 배경과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다.
 김정, 『땀은 올랐다』(1982) : 1925년부터 1926년 10월까지, ‘타도제국주의 동맹’ 조직
 천세봉, 『혁명의 려명』(1973) : 1926년부터 1928년까지, 길림 전투
 천세봉, 『은하수』(1982) : 1929년부터 1930년 6월 30일까지, 옥중투쟁과 카를회의
 석윤기, 『대지는 푸르다』(1981) : 1930년, 만주와 국내의 농촌지역 혁명화 과정
 권정웅, 『1932년』(1972) : 1932년부터 1933년 1월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조직과 항일투쟁
 리종렬, 『근거지의 봄』(1981) :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유격근거지 창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하는 소설문학을 어떠한 규모와 형식으로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¹⁶⁾께서는 몇편의 개별적인 장편소설에 전기나 년대기식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에 상응하게 방대한 규모로, 전일성과 체계성을 가진 총서형식의 대서사시적작품으로 쓰되 그 표제를 《불멸의 력사》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여기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기계적으로 시기구분에 기초하여 쓰지 말고 독자성과 특색을 가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¹⁷⁾

다시 말하자면, 장편소설 『50년 여름』은 ‘불멸의 역사 총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창작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김일성의 소설적 형상화에 초점이 맞춰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술방울로 총알을 만

과 인민혁명정부로선 제시
 현승걸·최학수, 『백두산기습』(1978) : 1936년 3월부터 1936년 5월, 남호
 두회의와 백두산 행군
 최학수, 『압록강』(1983) : 1936년 8월부터 1937년 6월, 백두산근거지 개척
 과 국내진공작전 감행
 진재환, 『잊지 못할 겨울』(1984) : 중일전쟁 시기
 석윤기, 『고난의 행군』(1976) : 1938년 11월부터 1939년 4월까지, 일제의
 ‘토벌’에 맞선 고난의 행군
 석윤기, 『두만강지구』(1980) : 1939년 10월부터 1940년까지, 대부대선화작
 전(무산지구 전투) 반영
 김병륜, 『준엄한 전투』(1981) :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토벌’작전 시기
 (※ 태평양전쟁 직전)
 (박중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출판사, 1986), 북한문예연구
 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pp.285-287 참조)

16) 여기에서 지칭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주체유일사상 체계 확립 이
 후부터 북한의 문학예술 창작을 주도해 왔던 김정일을 일컫는다(인용자
 주).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김일성의 생일에서 따온
 ‘415 창작단’을 결성하여 문예 분야의 주체화를 앞장서서 지도하였다.
 17) 박중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출판사, 1986), 북한문예연구
 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pp.284-285

들었다는 식의 전설적인 이야기 등을 동원한 신격화하고는 구별된다. ‘불멸의 역사’는 허구적으로 꾸며진 문학작품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서술된 역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술된 역사적 사건은 ‘올바르다고 판단된 시각’에 의한 공식적으로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을 소설 작품에서 파악해내는 데 적합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불멸의총서’는 계속 창작되고 있다. 항일혁명투쟁 시기를 다룬 해방 전 부분에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다룬 해방 후 부분이 계속 이어졌다.¹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50년 여름』의 시대적 배경을 그 전후의 작품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빛나는 아침』(권정웅, 1988)과 『조선의 봄』(천세봉, 1991)에서는 해방을 맞아 토지개혁을 위시한 제반 민주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조만식 등이 벌이는 반동세력의 음모를 물리치는 ‘건국’의 과정이 서술된다. 그러는 가운데 미제는 ‘북침’을 해오면 그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이를 분쇄하여 ‘괴뢰군’과 미제 세력을 낙동강 이남으로 밀어 붙인다(『50년 여름』, 안동춘, 1990). ‘전략적 후퇴’를 감행해 적의 동천상륙작전을 좌탄시킨(『조선의 힘』, 정기중, 1992) 그는 미군의 신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정전 담판장에서 항복을 받아낸다(『승리』, 김수경, 1994).¹⁹⁾

요컨대, 『50년 여름』은 한국전쟁의 발발로부터 낙동강 전선의 형성에까지 이르는 시기에 관한 서술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교해서 고찰할 『전선』 1, 2부와 서사적 배경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형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 사실주의에 충실한 작품이다. 이는 1980년대 북한의 소설에서 ‘숨은 영웅’ 혹은 ‘영웅적 인민 대중’을 형상화하는 이른바 ‘현실 주제 소설’이 창작되던 것과

18) 최근에는 ‘불멸의 역사’ 총서와 같은 식으로 김정일을 형상화한 ‘불멸의 향도’ 총서가 발간되는 중이라고 한다

19)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 실천문학, 1996. pp.61-62

무관하게 ‘수령 형상’을 꾸준히 추구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⁰⁾ 비록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같은 서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창작 시기 내지는 창작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 작품을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숨은 영웅’의 형상화와 『전선』의 대중성

리장후의 장편소설 『전선』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3부작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결국 미완인 채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제2부의 말미에 편집후기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²¹⁾ 아울러 제1부와 제2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이후 대전포위작전의 승리까지를 반영한 제1부는 주인공들인 리철훈과 최무현 등 인민군장병들의 무비의 영웅적모습을 장엄하게 남긴하는 전투행동에 담아 폭넓고 포연내가 질게 풍기도록 형상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락동강도하전투를 중심에 놓고 최고사령관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작전적방침을 최상의 높이에서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 주체형의 충신들을 보여주고 있다.²²⁾

20) 여기에 관해서 1980년대 북한의 현실 주제 소설은 “엄격하게 말하면 80년대 전체가 아니라 1980년부터 1988년까지”(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학사, 1994. pp.276-277)라고 규정한 김재용의 논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불멸의 역사 총서의 해방전편의 마지막 작품이 1981년의 『준엄한 전구』이고 해방후편의 첫 작품이 1988년의 『빛나는 아침』이라는 사실이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주제 소설이 창작되던 1980년대에 불멸의 역사 총서의 발간이 뜸하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21) “그러나 뜻밖에 작가가 우리의 결을 떠난 것으로 하여 작품은 보다 완벽하게 심화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이런 사정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게 3부작으로 구성되었던 작품은 아쉽게도 그 끝을 볼 수 없게 되었다.”(리장후, 『전선』 제2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 551)

22) 리장후, 『전선』 제2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551

편집후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선』에서는 한국전쟁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이른바 ‘숨은 영웅’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주체적 인물’로 ‘수령 형상’을 그리는 데에서 탈피하여 인민 대중 속에서 영웅적 인물을 찾아내어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1980년대 북한 문학이 보여주는 현실 주제 소설의 창작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된다.

무엇보다도 사상, 감정, 심리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창조적 활동과 투쟁과정에서 표현된다. 인간관계와 생활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사상과 감정, 심리가 생겨나고 발전한다.²³⁾

그러면서 주인공 공병중대장 ‘리철훈’의 가족사나 야전병원 간호장 ‘진달래’와의 연애 등을 첨가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피아의 구분이 명확한 것 역시 독자가 소설을 읽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는 요소이다. 작품에서는 오직 ‘정의’의 입장이 인민군과 ‘야수’의 입장인 미군 혹은 괴뢰군(국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국군 연대장 ‘박종필’이나 미군 사령부의 ‘맥아더’, ‘캠프’, ‘술쯔’ 등은 인간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은 채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만 서술되고 있다. 아군과 적군의 명확한 구분은 독자로 하여금 무협소설이나 판타지 등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갖게 한다.

게다가 군데군데 삽입한 삽화를 통하여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등장인물에 대한 안내서까지 첨부하여 소설을 읽어나가기 쉽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선』이 역사에

23)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당의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18

대한 서술이라는 측면보다는 흥미 위주의 서사라는 측면을 강화한 소설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요컨대, 『전선』은 인민대중에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접근했다는 것이고, 북한의 대중소설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설을 읽어보면 우려한 바와 달리 언어의 장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흔히들 과장되게 표현하는 북한식의 사투리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히 외국어를 배제하고 외래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해하기 쉬운 정도이다. 특히 단어의 선택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태질하며 쏟아지는 소낙비는 진창길을 철벽철벽 걸어가는 전사들의 어깨우에 뽀얀 물보라를 들썩였다.

무섭게 흐린 서편 하늘을 쪽 가르며 시퍼런 총장처럼 비껴지나가는 번개불이 무거운 장구류를 짊어지고 비바람을 맞받아 걸어가는 전사들의 모습을 얼비쳤다. 지친 얼굴들이 판화처럼 얼핏얼핏 드러난다. 비에 젖은 군복이 몸에 붙어 철떡거리고 묵직한 진흙덩이가 군화에 질척질척 달라붙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우에는 포연처럼 자욱한 물안개만이 굵실거린다. 처음에는 온몸을 화끈 달구던 7월의 불볕과 전선길의 지독한 먼지와 휘발유냄새대신 습습한 물비린내를 풍겨주는 한낮의 소나기에 환성을 울리던 전사들이었다. 하지만 질역스럽게 퍼붓는 비에 그만 기진맥진하였다. 비는 인차 그칠 비가 아니었다.²⁴⁾

소설 『전선』 제1부의 첫 부분이다. 음성상징어를 많이 쓰고 있으며 수식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소설끼리 비교하더라도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1980년대 북한 소설이 가지는 대중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선』의 제1부와 제2부가 공통적으로 대중성을 견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4) 리장후, 『전선』 제1부, 문예출판사, 1987. pp.3-4

6여 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두 작품은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일단 제1부에서 지나칠 정도라고 느껴지는 문장의 조탁이 제2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고도 제1부에 비하여 제2부에서 관념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의 배경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대전포위작전’은 인민군의 확연한 승리로 인식되지만, ‘낙동강도하전투’는 일방의 승리라고 하기에 힘든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술의 차이는 창작방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전선』 제1부는 1980년대에 출판되었고, 제2부는 1990년대에 출판되었다. “북한 소설은 80년대 이후 독자 욕구에 실제적으로 근접한 적도 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주체사상의 문학적 이념화가 강화됐다”는 지적을 상기하면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보일 수 있다. 즉 1980년대에 들어 북한 소설은 그 소재가 세대나 도시·지역간, 남녀간의 갈등 등 일상적 수준의 비적대적 갈등으로 변화해 나갔다가 1990년대에 주체 사실주의가 다시 강조되면서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창작방법론의 변화와 소재의 변이가 실제 창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동일 작가가 창작한 연속성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면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둔 『50년 여름』과 대중성을 염두에 둔 『전선』, 그리고 창작방법론 및 문예이론이 변화하는 시기를 담고 있는 제1부와 제2부를 대비하면서 북한 소설을 인식하는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한국전쟁이라는 점은 북한 소설에서 견지하는 현대사에 대한 시각을 상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III. 북한 소설의 한국전쟁 형상화 양상

1. 대서사시의 전개와 전형적 인물의 창조

이미 주체문예이론이 당의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제기되었던 고상한 리얼리즘에서부터 김일성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되어왔다. 북한의 문학은 바로 김일성의 형상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 불멸의 역사 총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해 내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개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²⁵⁾

그러므로 당연히 『50년 여름』에서 형상화된 김일성의 모습은 “우리 혁명과 새사회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인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자주적 인간, 열렬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수령 형상’에 걸맞게 강력한 지도력과 더불어 따뜻한 인간미를 갖췄을 뿐만

25) 류만, 『당의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p.45-46

아니라, 인민들을 보듬어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뇌를 통하여 확고한 결단을 내리는 인물이다.

그러한 김일성의 풍모는 『전선』에도 나타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휘소위치와 전선거리를 재며 부채를 지휘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새로운 전법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건하게 역설하면서도 수하의 인물 개개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감동을 주는 인물인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파도소리가 돌담옆에서 울리는 남해바다가 진보우네 굴포마을을 생각하고 계시었다. 살아생전에 장군님을 모시고 기어이 고향으로 가리라던 진봉우를 잊지 못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들수록 생각깊어졌다.

장령들의 무거워진 마음을 헤아리신듯 장군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강권일행을 돌아보시었다.

《락동강을 건너 굴포마을에 도착하면 진봉우동무가 생전에 약속하던 그 도미죽을 쉬놓고 한바탕 즐겨봅시다.》

문득 생각나신듯 강권의 이름을 부르시었다.

《여기서 상주가 멀지 않은데 시간을 내서 한번 갔다오오. 고향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느라 머리가 다 희었을거요. 잊지말고 강권동무는 고향에 먼저 갔다오시오.》

장군님의 그 말씀에 강권은 눈앞이 뿌연게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

《장군님, 전쟁이 한창인데 거기야...》

《전쟁이 한창인데 어쩔단말이요. 내 그러지 않아도 동무가 그렇게 생각할가봐 미리 말해두는거요. 동무스스로 고향에 갈 사람이 아니지. 내 그래서 일부러 말하는거요.》

《장군님, 제 고향에야 아무때 가면 뭐랍니다?》

《그런 소리 마오. 고향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마오.

내 동무한테 명령하는데 거기에 갔다온다고 전선참모부일에 무슨 혼란이 조성되겠는가. 꼭 갔다오오. 어머님께 내 안부를 전해주오.》

《장군님, 알겠습니다.》

강권은 그 말을 가까스로 외웠다. 장군님앞에서 더 버틸수도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왈칵 솟구쳐오르는 설음같은것은 참기 어려웠던것이다.²⁶⁾

그러나 김일성이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한 것은 『전선』 제2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1부에서는 교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대상으로서 김일성의 실명이 보이거나 인민군 장병들의 대화 속에서 김일성의 풍모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김일성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선』의 사건 전개 속에서 김일성이 주요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

『전선』 제1부에서 부각되는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숨은 영웅’이다. 주인공 ‘리철훈’은 과도한 전투 참여로 징계를 받고 전선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른바 ‘조국해방전선’의 선봉에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운 것이다. 그의 동생 ‘리영숙’도 여성의 몸으로 전선을 달리는 군용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모든 등장인물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물 형은 개성을 통하여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현실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중적 영웅으로서 인민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수령 형상’이라는 허울로부터 일탈하여 개인과 생활의 문제를 형상화²⁷⁾했던 1980년대 북한 소설이 가졌던 대중화 경향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소설은 말 그대로 생활을 쪼개서 분석적으로 그려낸 성격창조의 문학이며 묘사의 문학이다. <...> 또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것은 사건본위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인간학의

26) 리장후, 『전선』 제2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p.82-83

27) 이재인·이경교, 『북한문학강의』, 효진문화사, 1996. p.156

생활반영의 근본방법이라는데 있다.²⁸⁾

그런데 『전선』 제2부에 이르러 사정이 달라졌다. 주체사실주의의 발현으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과 혁명적 수령관을 똑바로 세울 것”이 강조되었다. 이른바 김일성 전형의 형상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 채로나마 주체적 인간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작품 속에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50년 여름』이 불멸의 역사 총서의 일환으로 주체적 인간 전형의 형상화를 통하여 민족의 대서사시를 전개하기 위해 구상된 것인데 반하여 『전선』은 도식성을 극복하고 개성적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귀감이 되는 영웅적 인물 전형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는 소설의 대중성을 담보해냈던 1980년대에 창작된 제1부에 그치고 말았으며, 1990년대에 창작된 제2부에서는 대서사시와 영웅적 개인의 중간에 선 어중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무갈등 이론의 미학과 전쟁 배경의 효과

소설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서사물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요소로서 갈등(conflict)을 꼽는다. 그러나 북한의 소설에서는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무갈등 이론의 미학’²⁹⁾이라고 하기도 한다.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일련의 ‘수령 형상 문학’에서는 주인공(protagonist)만 존재할 뿐 적대자(antagonist)가 등장하지 않는다. ‘불멸의 역사 총서’의 일환인 『50년 여름』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28) 리동원, 『작품의 주인공』(주체적문예이론연구(3), 문예출판사, 1990), 북한 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276

29) 김윤식, 『북한의 문학사론』, 도서출판 새미, 1996. p.120

내적 갈등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수령은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으로서 결단을 위한 인간적 고뇌가 있을 뿐 지향에 대한 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갈등의 부재는 대중성을 가진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전선』도 마찬가지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조국해방전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욕망의 삼각형을 그리기에 적합한 열망의 대상이 아니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리철훈’과 ‘진달래’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연애를 후원하고 전장이라는 환경도 그들의 연정을 갈라놓지 못한다.

작품 속에서 대립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은 오직 ‘정의’의 편에서 있는 인민군과 ‘승냥이’의 무리로 수식되는 미군과 그 괴뢰인 국군이다. 주인공 ‘리철훈’의 개인사에서 드러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그 자본가였던 ‘박민식’과의 관계가 그의 아들인 국군 장교 ‘박종필’과의 관계로 전이되면서 적군과 아군의 대립으로 함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립은 작중 배경으로 설정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 외에는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욕망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개인적인 증오나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의 문예이론에서 갈등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사가 진행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문학예술 작품에서 예술적 갈등은 형상 창조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³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예술의 갈등은 생활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반영이라고 가르치였다.

30)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265

문학예술작품에서 갈등을 옹계 설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그 사회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갈등을 옹계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힘으로써 문예리론에서 독창적 경지를 개척하였다.³¹⁾

북한 소설 속의 인물은 계급이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입장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갈등이 얽혀서 사건을 진행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의 구현이라는 목적에 함몰하면 자연스럽게 인물 간의 갈등이 도외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조국 해방 혹은 혁명이라는 관점에서는 고무할 만한 것이지만 인민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주성 혹은 자발성과 주체사실주의의 당성과 연결하여 혁명기의 투쟁정신과 건설기의 자주정신의 변증법적 고풍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창작방법론상에서 무갈등 이론이어야 하느냐 그래도 갈등을 내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전개된다.

<...> 사회주의사회에는 사람들사이의 적대적 모순이나 대립, 충돌이 생길 사회경제적기초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는 갈등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락후한 생활인습을 반대하는 투쟁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반동사상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계급투쟁이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사이에 벌어지고있는 사상혁명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은 비적대적, 상용적 성격을 띠게 된다.³²⁾

31) 류만·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171

32)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279-280

북한의 문예이론에 따르면 갈등은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적대적 갈등은 계급적 갈등으로서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하고 결렬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 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서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갈등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요심을 거느리지 않는 갈등 구조’가 실제 소설에서 구현된 양상 또는 그 성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50년 여름』이나 『전선』의 경우에는 극한 상황인 전쟁을 배경으로 설정하였기에 갈등이 부재한 상태로 소설 구조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적대적 갈등은 적군과 아군의 대립으로 전개할 수 있고, 비적대적 갈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 앞에 현격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한 무갈등 이론의 미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 형상을 지향하였든 숨은 영웅을 지향하였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거느리지 않는 갈등 구조 혹은 갈등을 배제한 서사 구조를 나름대로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전쟁에 대한 발발 원인과 과정에 대한 표현 방법

북한의 소설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북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이미 올바르다고 판단된 시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소설에서 이견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부분의 표현 방법은 『50년 여름』과 『전선』에서 달리 나타난다.

《기상! 폭풍!》

전등불이 확 켜지며 눈살을 곳곳하게 만들었다. 비웃도 없이 달려 온 직일군관의 검스레한 모습을 보며 운학은 무슨 비상소집인가 하고 생각하며 습관된 동작으로 재빨리 일어나 바지를 꿰었다. 옷을 입으며 시계를 얼핏 보니 시침이 네시쪽에 가있었다.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청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여러명이 나와있었다. 그의 상관은 인사와 받지 않고 긴장된 얼굴로 《지도를 꺼내오.》라고 잘막히 일렀다. 뭐라 이름할 수 없는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무슨 훈련입니까?》

운학이 얼굴에 비물을 닦으며 묻자 부장은 거의 애처로운 빛으로 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리승만괴뢰군이 38선을 넘어섰소.》

<...>

<과연 전쟁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눈을 감으셨다. 화염이 휘몰아치는 분노에 열띤 사색의 틈바구니에서 튀겨나온 이 물음앞에 그이께서는 숨결이 가빠오셨다. 비통과 분노로 굳어졌던 정치위원의 모습이 떠오르셨다. 모두가 전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 도발을 중지할데 대한 정부성명 발표에 긍정은 하면서도 누구나 그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도 같은 견해이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혹시나—》하는 희망을 저버릴수 없으셨다. 단 몇분이라고 희망을 안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 일분이라도 늦추고싶으셨다. 하여 그이께서는 내각청사로 곧추 차를 몰게 하신것이 아니라 보통문쪽을 에돌게 하셨다.³³⁾

『50년 여름』은 소설의 서장에서부터 남한의 정치 상황과 미국동군의 동태를 서술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과 폭발과 같이 시작된 전쟁, 그리고 김일성의 인간적 고뇌와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 지휘관과 병사, 그리

33) 안동춘, 『50년 여름』, 총서《불멸의 력사》(해방후편), 문예출판사, 1990. pp.109-115

고 후방 인민에 대한 배려, 세계 정세를 고려하는 거시적인 사고력 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반공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전쟁의 초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선』에서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선비 출신의 촌로 박정언과 문화부사단장 홍지명과의 대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일단 촌로의 입장에서 인민군의 진주에 겁을 먹었다가 정중하게 다가가는 인민군 장교의 자세에 적잖이 놀라는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풀어나간다.

《이런걸 물어봐두 일없겠는지유?》

《서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제 아는것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정언은 한동안 담배만 빼금빼금 빨았다. 바재이느걸 보니 물어보자는 문제가 가볍지 않은 모양이었다. 홍지명이 어서 말씀하라고 거듭 권해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알자는건 다름이 아니오라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거예유》

《허허허...》

홍지명은 겸허하게 웃었다. 하면서도 로인이 심분 그런 말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평연한 얼굴 표정으로 자못 궁금한듯 물었다.

《로인님,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박정언은 면청서기와 널재마을 넷째녀석이 그런 헛소릴 했다는 말을 차마 번질수 없었다.

《로인님, 로인님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우리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놈들이 리승만을 사촉하여 먼저 일으킨 전쟁입니다.》

<...>

그는 미제침략선 《사만》호사건으로부터 력사에서 《신미양요》라고 불리우는 1871년 미국군함 《모노카시》호의 강화도 침입사건을 거쳐 오늘의 조선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별의 별 짓을 다한 미국놈들의 책동을 역사적사실을 추려가며 이야기했다.

《으—흠, 일인즉 바루 그렇게 된게구만 고현놈들!》

박정언은 눈을 똑 부릅뜬채 틀어진 주먹을 후들후들 떨었다.

《난 그런줄을 쇠통 모르구서... 용서하시유. 이 미련한 촌놈은이를...》³⁴⁾

요컨대, 『50년 여름』에서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그에 대응하는 김일성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전쟁의 발발을 서술하고 있고, 『전선』에서는 피난을 가지 못한 촌부와 인민군 문화부사단장의 대화를 통하여 전쟁의 발발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50년 여름』이 역사의 소설적 서술로 기획된 것이고, 『전선』이 대중성을 가지고 인민에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진 작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될 만한 것이다. 그 대중성은 자본가의 압박에 의해 희생된 노동자의 가족, 특히 어린 아이나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독자의 오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³⁵⁾ 그런데 이러한 인민대중과의 대화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서 파생하는 희생자의 등장 등은 『전선』 제1부에서 많이 보이지만 『전선』 제2부에 이르러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전포위작전 이전과 낙동강도하전투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전쟁 양상의 변화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설에 접근하는 자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 역시 1980년대 북한 소설의 대중성 확보와 1990년대 이후의 주체 사실주의의 재확립이라는 창작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리장후, 『전선』 제1부, 문예출판사, 1987. pp.188-189

35) 『전선』 제1부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정국을 거치면서 친일자본가에게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이들에 대한 일화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공감을 통하여 소설의 대중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리철훈’과 어린 ‘진성기’의 만남은 여성과 어린이를 첩과 노예로 만든 ‘박종필’과의 개인적인 원한과 어울려 그러한 의도를 확연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개인사에 대한 묘사가 제2부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IV. 한국전쟁의 소설적 형상화의 의의와 문제

1. 작중 배경으로서의 전쟁과 품성의 문제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극단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소설 등의 서사물에서 형상화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품성의 개발이나 양양이라는 주된 목적 아래 극한 상황 혹은 영웅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정황’으로 6.25를 형상화³⁶⁾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말하자면 고귀한 인간의 본성 혹은 품성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극한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전쟁이기에 한국전쟁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이 선전 및 선동의 수단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에 대하여 계급적이고 주체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대립이 절정에 도달한 사건인 한국전쟁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인민 대중을 사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전쟁시기 산문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우리 인민이 진행되는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의 성격을 널리 선전하고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고발함으로써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원썩격멸의 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예술적정론은 그 정치적예리성과 강한 선동성, 호소성으로 하여 커다란 선전선동적기능을 수행할수 있었다.³⁷⁾

36) 서경석, 「6.25와 남북한 문학」,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 16,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267

37)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II』(1986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 북한문예연구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pp.156-157

그런데 문학을 통해 사상적 교육을 받아야 할 성분의 사람은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근로인민, 즉 노동자농민이므로 문학은 근로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³⁸⁾ 그러므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통한 계몽은 곧 영웅적 인민의 형상화로 이어진다. 『전선』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것이다.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아우르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은 김일성을 전형으로 하는 주체론과는 다른 품성론의 차원이다. 그러한 품성을 제시하는 데 한국전쟁은 효과적인 서사적 장치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현재와 단절된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다름 아니다. 문학 작품 속에 묘사된 한국전쟁을 수용하는 입장이 중세나 근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철저히 소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품성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소격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면 북한 소설이 의도한 바대로 현실 주제에 의한 숨은 영웅 또는 영웅적 인민 대중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소설에서 한국전쟁은 소재적 측면으로 선택한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이 마지막으로 공유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을 소설에서 다루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체성 또는 당위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인민 대중에게 계몽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역사적 사건의 총체적 전망의 문제

북한 소설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쉽게 발견할

38)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 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고려원, 1990. p.25

수 없다. 역사의 소설적 서술로 기획된 ‘불멸의 역사 총서’조차도 김일성의 항일 및 해방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중성을 염두에 둔 현실 주제 소설에서도 개인의 영웅적 사고와 행동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은 단지 배경으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북한 소설은 역사적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역사의 사사화(私事化)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에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50년 여름』이나 『전선』에서도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도식적인 결과의 의한 낙관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각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소설은 그 소재의 대중성이나 민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인간의 품성의 문제에 국한하여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전쟁을 총체적으로 전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성’이나 ‘민중적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올바르다고 판단된 시각’에 의하여 규정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총체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 문학예술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어 수령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방과함께 우리 나라에는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고, 당의지도하에 우리인민들은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고 토지개혁을 위시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미제무력침략자들과의 가렬한 투쟁, 전후 사회주의 선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창조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³⁹⁾

39) 『조선문학통사』(1957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 발간), 북한문예연구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북한의 유일사상으로서 주체사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일한 창작방법론으로서 주체 사실주의가 정립되기 전부터 북한의 역사관은 확고히 성립되었다. 역사에 대한 당의 시각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창작 방법에서 역사의 총체적 전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소설이 “영웅적 형상을 창조하여 실감 있게 형상화하는데 주안점”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전형(典型)’의 문제와 연결된다. 소설이란 역시 인물 형상을 통하여 역사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등장인물의 개인적 상황을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역사나 사회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학예술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역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⁴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이론에 의하면, ‘전망(展望)’이라는 것은 총체성을 담보해 낼 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총체성은 본질의 연관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본질은 전형의 양상으로 소설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이론에서 “사건본위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인간학의 생활반영의 근본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소설은 성격창조의 문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미리 제시된 문예이론에 따라 창작된 북한의 소설을 남한의 소설 독법으로 읽을 때 그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40) 류만·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54

있다. 비록 그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것이 결국 이질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질성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동질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북한의 장편소설 『전선』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50년 여름』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북한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체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을 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접근하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즈음하여 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격동에 의하여 소설 창작의 이론과 표현에서 세밀하나마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1967년부터 북한의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규정된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수령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 ‘불멸의 역사 총서’이다. 『50년 여름』은 “불멸의 총서 해방후편”이라는 밝히고 있듯이 그러한 역사적 서사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소설이다. 그래서 1990년에 발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김일성을 주체적 인간의 전형으로 형상화하는 주체 사실주의의 이론에 충실한 작품이다.

그것에 비하여 『전선』 제1부는 1980년대에 북한 소설의 경향으로 대두된 대중성에 따라 현실 주제에 의한 ‘숨은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비록 한정된 범위이지만 개성의 발현으로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언어의 조탁과 흥미 유발의 서사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그 소설의 속편에 해당하는 『전선』 제2부는 1992년 주체문학론의 재확립에 따라 다시 주체 사실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래도 제1부의 인물과 상황을 그대로 계승하였기에 대중적

작품과 주체적 작품의 양상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다.

북한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선전 및 선동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의 소설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현재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대립의 절정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 혹은 당위성을 인민 대중에게 선전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형의 형상화를 위한 작품의 배경으로서 소재적 차원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미 올바르다고 판단된 시각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역사적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창작 방법에서 역사의 총체적 전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소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한의 소설과 비교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에 의탁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소설에 대한 연구는 결국 남북한 문학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확보를 통한 통일문학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질성의 회복은 이질성의 확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 소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정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가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북한소설(North Korean Novel), 한국전쟁(The Korean War), 주체사실주의(Juche-realism), 주체문예이론(Juche literary theory), 수령 형상(President form), 숨은 영웅(hidden hero), 현실 주제 소설(real-material fiction), 『불멸의 역사』(The Immortal History), 『50년 여름』(Summer in 50), 『전선』(The Battle Line)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리장후, 『전선』 제1부, 문예출판사, 1987.
_____, 『전선』 제2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안동춘, 『50년 여름』, 총서《불멸의 력사》(해방후편), 문예출판사, 1990.

2. 북한 문예이론 자료

- 김성수, 『우리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사계절, 1992.
류 만, 『당의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류만·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리동수, 『우리 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리동원, 『작품의 주인공』(주체적문예리론연구(3), 문예출판사, 1990),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276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출판사, 1986), 북한문예연구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장 영, 『작품의 인간문제』(주체적문예리론연구(1), 문예출판사, 1989),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조유철, 『숨은 영웅들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미학실천적 문제』, 『문예론문집(4)』,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p.111-158
『우리 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발전 논쟁』(북한사회과학원문학연구실), 사계절, 1989.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종자와 작품창작』(사회과학출판사, 1987), 북한현대문학총서, 태학사,

1992.

『조선문학통사』(사회과학출판사, 1957), 북한문예연구자료선, 도서출판 인동, 1988.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2. 논문 및 저서

권오현, 「해방직후 리얼리즘 연구」, 『문학에 대한 두 가지 단상』, 2000. pp.198-218

_____, 「우리 문학의 분단 양상과 리얼리즘 이론의 대립」, 『문학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도서출판 사람, 2000. pp.219-233

김윤식, 『북한의 문학사론』, 도서출판 새미, 1996.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서경석, 「6.25 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비평』, 1990 가을. pp.400-410

_____, 「6.25와 남북한 문학」,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 16,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p.249-269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 실천문학, 1996.

오태호, 「내면의 결핍을 강제하는 주체의 논리 - 분단 이후 북한 문학의 형성 고찰」, 『내일을 여는 작가』, 작가회의 출판부, 2005 가을. pp.261-280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고려원, 1990.

이재인·이경교, 『북한문학강의』, 효진문화사, 1996.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 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고려원, 1990.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Figuration of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n Novels

- Focusing on Novels, *The Battle Line* and *Summer in 50* -

Kwon, O-Hye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the figuration of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n novels. The Korean War is the most recent one among other historical events that South Korea share with North Korea, and is an event that entails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firm establishment of separation. In this vein, the consequences that result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Korean war as it is figured in novels are of great value.

This study is part of work that tries to explicat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comparing novels in each party. Though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compare representative novels from South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in order to carry out such work, this study above all tries to investigate North Korean novel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part I (1987) and part II (1993) of Ri Jang-hu's *The Battle Line* and An Dong-chun's *Summer in 50* (1990).

North Korean novels basically aim to figure a communist human model based on Juche-realism. However, approaching closely to North Korean novels, we can find out some changes, though minute, in the theory of novel creation and express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political fluctua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situation. This is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popularity found North Korean novels in the 1980s and the strengthening of Juche literary theory since the 1990s.

The North Korean novels deal with the Korean War in the dimension of enlightenment. Considering the social functions of North Korean novels, the figuration of the Korean War, which is the peak of the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South and North Korea co-exist, is useful to propagate the identity and authenticit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권오현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주소: (708-77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103동 402호

전화번호: (053)241-0582(011-529-0582)

전자우편: koh312@silla.ac.kr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